

사건으로 보는 옛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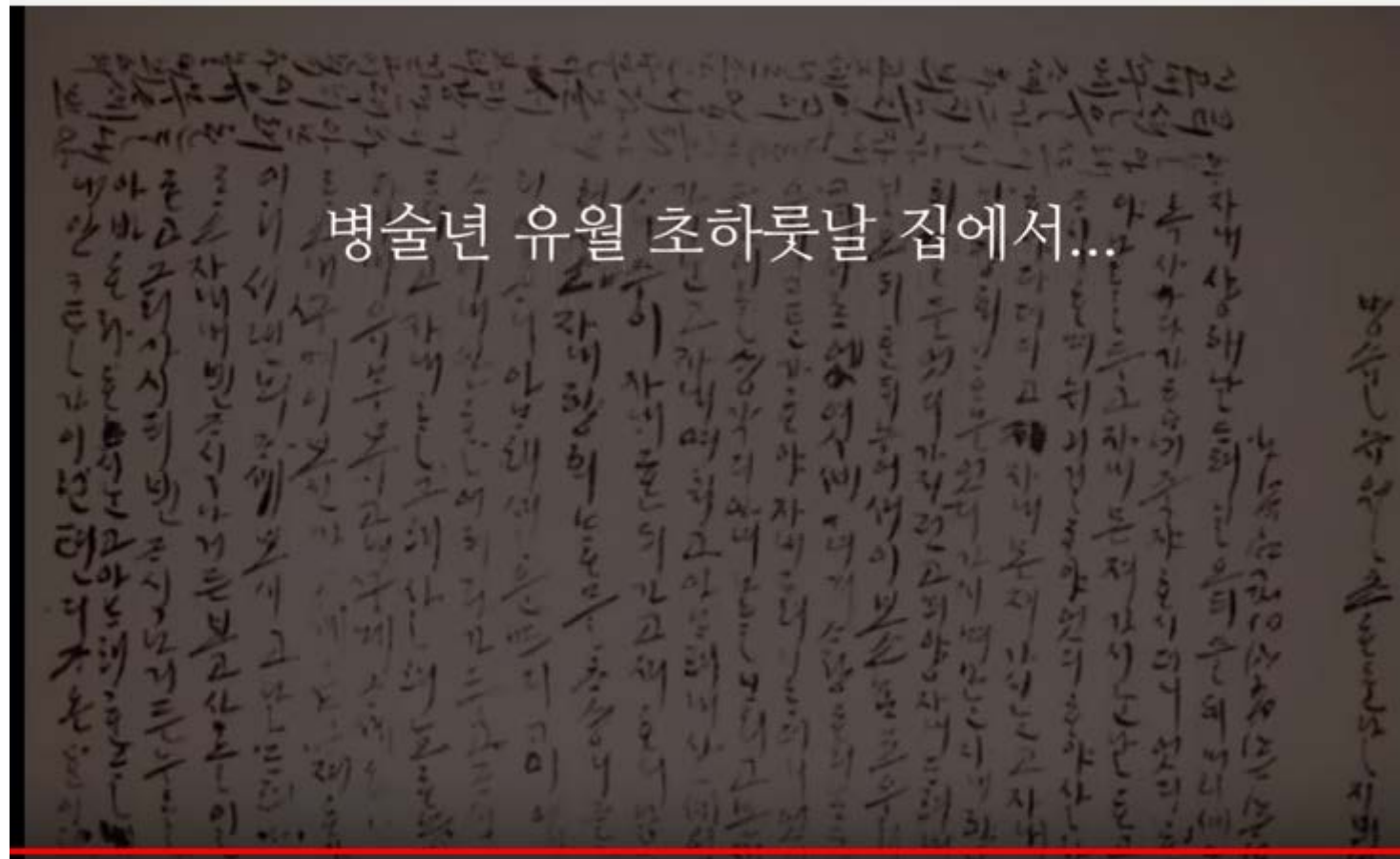
11주. 가족사랑

3차시 가족들의 애정 헌사들

학습목표

1. 가족간 주고 받은 작품을 안다.
2. 작품 속 가족애를 이해한다.

남편에게 보내는 하늘 편지



<https://www.youtube.com/watch?v=2CJOq9Ly96U>

이응태 부인의 한글 편지

31세에 죽은 남편을 향한 애절한 절규.
자신의 머리카락과 삼을 섞어 짠 미투리.

편지 :

가로 60cm, 세로 33cm

언문(한글) 편지



서울간 남편을 그리며...

광산 김씨 애정

어려서 부부인연 굳게 맺었는데
 갑자기 이별하니 둘 다 가련하네요
 추운 날 객지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적막한 빈 방의 첩도 잠 못 이룹니다
 生來人間赤繩纏 一朝相別兩可憐
 天寒旅舍寂寞空閨獨不眠何如在

<寄遠> 제1수

매사에 즐거운 일 없고
 일생이 참으로 가련하구나
 서울과 고향은 천리 길
 홀로 한하며 잠 못 이루네
 萬事無歡況 一生真可憐
 京鄉千里隔 窮獨恨不眠

<寄遠> 제2수

어머니 품을 떠나며

신사임당

늙으신 어머니는 임영 고향에 계신데
외로이 서울로 가는 이 마음
이따금 머리들어 고향을 바라보니
흰 구름 떠 있는 곳 저녁 산만 푸르네
慈親鶴髮在臨瀛 心向長獨去情
回首北村時一望 白雲飛下 暮山靑
<대관령 넘으며>



🔍 부모님 생각에 서글퍼지네

신사임당

부모님 생각

천 리 길 고향은 첩첩 산 너머
가고픈 마음, 밤마다 꿈 속에서 찾아가네
한송정 가의 하늘, 물 속에 달이 걸려 있고
경포대 앞 한 줄기 바람.
갈매기 모래톱에 모였다 흩어졌다
고깃배 파도 위로 왔다갔다 하네
어느 때 강릉 길 다시 밟으며 가서
색동옷 입고 부모님 곁에서 바느질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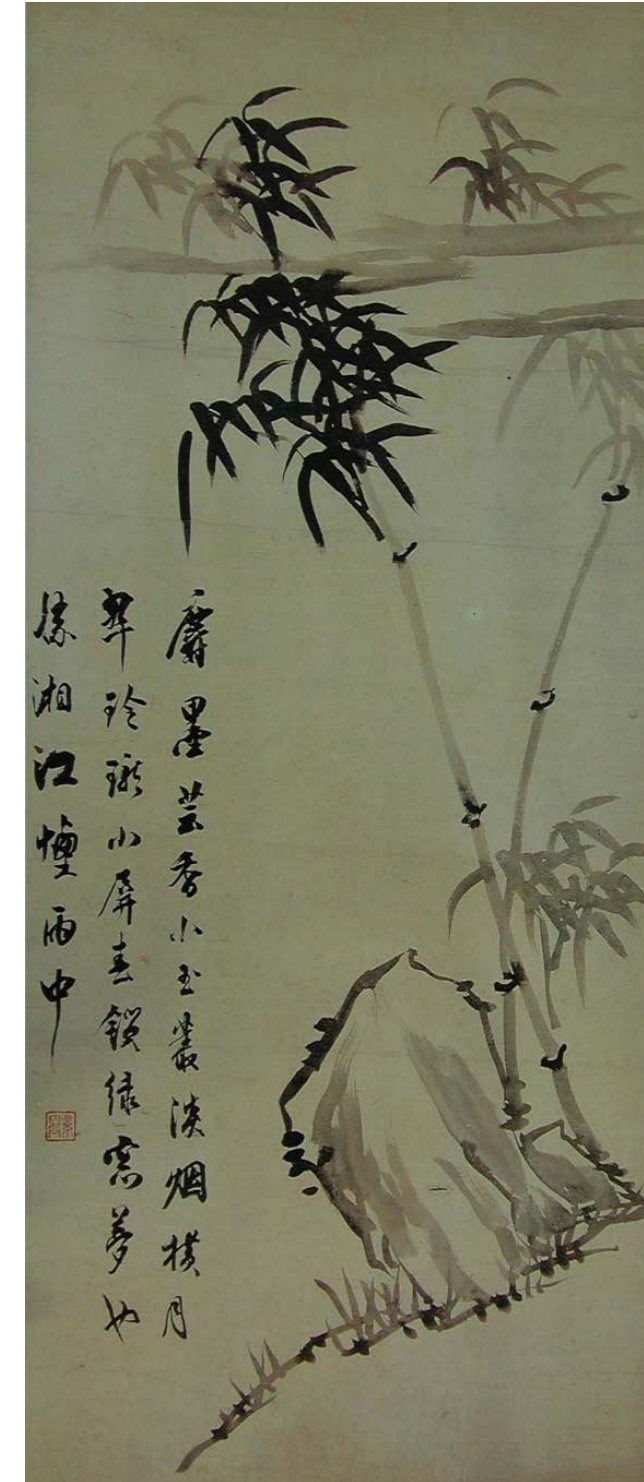
🔍 아내 영전에 바치는 글

신위

인간 음식 즐거움 다했는데
생일에 장막에 제수 올리네
동풍은 후드득 때맞춘 비를 보내고
반쯤 떨어진 주렴의 갈대 물결 무늬 젖었네
둥지 그리워하니 홀로 남은 제비이고
바다에 가라앉았으니 다시는 옥을 합치지 못하리
같은 날 태어난 사람들 같은 집의 인연
한 번 잃으니 번갯불의 빠름 따르기 어렵구나

人間飲食儘可樂 奠向虛帷作生日
東風霎霎送靈雨 簾蘆半落波紋濕
戀巢眞如隻留燕 沈海應無再合璧
同日生人同室緣 一失難追電影疾

<죽은 아내 생일에>



자하 신위 墨屏중 한폭



딸을 시집으로 보내며 신위

생각하니, 처음 너를 시집보낼 때
 京籍에서 구하지 않고
 또 장자를 구하지 않고
 둘째 셋째를 골랐으니
 다만 네가 약함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며
 또한 백 가지 생각이 있었으니
 네 어머니에게는 다만 딸 하나라
 네가 없다면 그림자 하나니
 弄瓦함이 천하다 말라
 정을 위로함은 拱壁보다 낫다
 잠은 반드시 네가 자기를 기다려 잤고
 밥도 반드시 네가 먹기를 기다렸다
 ...중략..

사위가 이제 너를 데리고 떠나니
 와서 인사함 물리칠 수 없구나
 ...중략..
 하늘이 혹시라도 부신을 지니게 해주어
 바라건대 연줄을 타서라도 만나보았으면
 이 계획 역시 그릇되고 머니
 이웃에 시집보내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送李婦洪鄉 作八十韻>

학습내용 돌아보기

남편에 대한 애정

- 이응태 부인의 편지
- 광산 김씨의 편지

부모에 대한 그리움

- <대관령 넘으며>
- <사친>

아내에게 바치는 글

- <죽은 아내 생일에>

딸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

- <딸을 시집으로 보내며>